

#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이질자를 위한 사회 정의 ,

## 4부, 과부, 고아 및 거주 외국인 조항 [WORA]

© 2024 Michael Harbin 및 Ted Hildebrandt

저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이상치에 대한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이클 하빈 박사입니다. 이것은 4부: 과부, 고아, 거주 외국인 조항입니다.

샬롬, 저는 테일러 대학교의 마이클 하빈이고,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정의와 사회적 이상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부분 중 네 번째인 마지막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과부, 고아, 거주 외국인,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조항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가 주어진 후 이스라엘 국가의 사회적 구조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이 농업 기반, 즉 공동체의 기반으로 둘러싸인 마을에 정착한 방식을 알아봤고, 그러한 구조가 일, 가족 관계, 사회적 규범과 관련하여 그들의 사회의 여러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논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사회 정의의 개념을 균형으로 정의하고, 그것은 두 가지 것의 균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공정한 짐, 부담, 규범적 지침을 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공정한 몫, 즉 구원적 지침인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둘 다 기대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확대 가족의 본질을 살펴보고, 관계 측면에서 사회의 전반적인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의 전체 상황을 살펴보고, 사회적 구조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선이 필요한 역동적인 구조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죽음이 어떤 개인을 지원하는 공동체 없이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범주, 즉 과부, 고아, 사실상 아버지 없는 사람, 거주 외국인을 언급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이를 집단적으로 WORA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개인들을 돕기 위해 제공하신 구체적인 조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WORA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원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문화권에서 농업 자원이 부족했다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그 농업 자원이 없다면 WORA는 특별한 사회 정의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구약성서는 여러 사회 정의 조항을 통합하여 실제로 이 그룹을 위해 특별히 의도된 네 가지 프로그램을 밝힙니다. 첫 번째는 레위라테 결혼, 두 번째는 이삭줍기, 세 번째는 십일조와 3년차 십일조,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년 수확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Levirate Marriage. 우리는 이미 최초의 사회 정의 프로그램이 Levirate Marriage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Levirate Marriage는 과부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분명히, 특히 아직 출산 가능한 나이의 과부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친척이 과부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과부가 노년에 과부를 돌볼 것이라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이미 자녀가 있었다면 레버렛 결혼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고아라는 용어는 실제로 아버지 없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과부는 자식과 함께 살면서 다른 식량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자식을 둔 과부의 예를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레의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아들로 묘사됩니다. 지금 여기서의 용어는 과부입니다. 이것은 성인입니다. 히람은 숙련된 청동 노동자가 된 성인입니다.

그가 어디서 기술을 배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과부의 아들이라는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를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14장에서 데코아 출신의 한 여인이 다윗을 대면하기 위해 끌려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불화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동생을 죽였고, 이는 살인으로 간주되어 처형을 당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는지 가정적인 상황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그것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 그 땅에 유사한 상황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그 여인의 걱정은 온 가족이 나와서 그녀에게 반기를 들고 정의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형제를 죽여서 죽은 자에게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노년에 그녀를 부양할 상속자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 예는 열왕기 상 17장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렙다로 가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가뭄과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과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부라고 불립니다. 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가 마지막 밀가루를 빵으로 굽기 위해 불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그것을 먹고 죽을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일하기에 너무 어렸는지, 아니면 그녀가 땅을 가졌지만 가뭄 때문에 일할 수 없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의 인도로 그녀의 밀가루 그릇과 기름 단지는 가뭄 내내 가득 찼습니다. 그 후, 그 소년은 병들어 죽었고, 신은 엘리야를 통해 그 소년을 키워서 그의 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과부가 자녀를 가졌다면, 그녀가 어린 시절에 자녀를 돌볼 수 있지만, 반대로 그녀는 노년에 자녀들이 그녀를 돌볼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요 전제는 가족 토지의 소유권이 장남에게 유지되고, 따라서 그가 나이가 들면 토지를 경작하고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기본 원칙은 단순히 과부에게 부양을 제공해야 한다는 훈계에 있는 듯합니다. 그 문화권에서 어린이는 노인을 부양하는 주요 원천이었으며, 1부에서 언급했듯이 말입니다. 이 조항은 과부에게 자녀가 없고 아직 충분히 젊을 때에만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를 가질 만큼 어린, 아이가 없는 과부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과부는 아이를 가질 만큼 젊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과부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 개념에 대한 몇 가지 해설을 제공합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의 큰 도시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원칙에 대해 더 도시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는 가족 토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연로한 과부의 자녀나 손주가 그녀를 돌보는 주된 책임이 있다는 단호한 지시로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자녀나 손주가 없다면 교회가 부양 의무의 일부를 떠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목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과부가 적절한 지원을 받는 상황을 언급하지 않는 듯하지만, 필요가 없는 경우 교회는 그것을 채울 의무가 없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본 원칙의 동일한 결과가 여전히 적용되는 듯합니다. 가족은 노인, 특히 과부를 부양할 첫 번째 책임이 있었고 그 다음이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결혼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 부부의 아들은 그 여자의 첫 남편의 이름과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레비라테 결혼의 조항이 될 것입니다. 자녀는 있지만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만 제공되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조항에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조항은 세 그룹 모두에게 적합한 듯합니다. 재혼하지 않은 모든 연령대의 과부, 과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없는 사람, 실업 중인 외국인 거주자 .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조항은 이삭줍기입니다. 이것은 WORA의 주요 조항이며 세 그룹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삭줍기는 오래된 과정입니다.

수확한 후에 밭이나 과수원으로 돌아가서 수확자가 놓친 농산물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인디애나 남부에 있는 부모님의 일요 학교 받은 기계식 수확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 후에 실제로 옥수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부에게 다시 팔 만큼 충분히 모았습니다. 농부는 그들에게 일요 학교 수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삭줍기가 존재합니다.

구약성서에서 이삭줍기의 유일한 예는 곡식밭에 있는 룯이지만,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 구약성서는 곡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작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포도원, 레위기 19장, 올리브나무, 신명기 24장을 언급하면서 이삭줍기를 하는 사람이 수확 기간 동안 여러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며, 성경적 지침을 따르는 농부들이 있다고 가정한다. 기본 원칙은 농부가 생산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여유를 두었다는 것 같다.

어떤 문화권에서도 구현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자급자족 문화로 여겨지는데, 이는 농부가 1년 동안 한 가족을 부양할 만큼 수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데드 보로프스키는 그의 책, 농업의 철기 시대 이스라엘에서, 철기 시대의 다양한 혁신으로 인해, 인용하자면, 식량이 엄청나게 잉여로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기본 전제는 사람들이 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면, 신이 잉여를 공급해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아스의 상황에서 알 수 있는데, 보아스는 기근 때문에 엘리멜렉이 떠난 마을에 남아 있었고 보아스는 번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농업적 이삭줍기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개인의 미래를 위해 의도적으로 여유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스라엘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레위기 19:23과 신명기 24에서 이삭줍기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지침이 주어진다.

간단히 말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곡물을 수확할 때, 모서리까지 수확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곡물 잔여 기준은 gleaner, 즉 WORKA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텍스트는 수확되지 않은 발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 시대의 초기 유대인 공동체가 구약성경 관행에 대해 논평한 미슈나(Mishnah)는 수확량의 60분의 1이 최소한으로 간주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발의 크기, 가난한 사람의 수, 농부의 관대한 정도와 같은 요인에 따라 제공되었다고 암시합니다.

둘째, 수확자가 한 뭉치를 떨어뜨리면, 그는 그것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생산물은 이미 수확되어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자는 이 곡식 뭉치를 가지고 아마도 6개 이상을 그들이 준비하는 저장 장소로 다시 가져가서 운송이나 타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수확자는 아마 하나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 뭉치는 땅에 남겨져서 이삭 줍는 사람 중 한 명이 주워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수확자들은 농친 농산물을 찾으러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언급했듯이 곡물 외에도 올리브나무와 포도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이삭줍기 지침이 곡물뿐만 아니라 전체 수확을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익지만, 나중에 익는 것도 항상 있고, 그것들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옥수수밭을 떠올려보면 항상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모든 것이 낮게 깔려 있는 완전히 수확된 옥수수밭을 걷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해 동안 옥수수가 땅에 누워 있는지 놀랍습니다. 포도원의 경우, 포도송이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아직 익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올리브의 경우, 수확자는 막대기로 익은 올리브를 떨어뜨리고 떨어지지 않는 올리브가 몇 개 있으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줍는 사람이 가서 따면 되었습니다.

언급된 생산물의 범위를 감안하면 이삭줍기 지침이 수확 전체에 적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늦은 봄, 4-5월 기간에 첫 번째 곡물을 수확하기 시작하여 밀을 수확한 다음 다른 작물을 수확하고 가을에 올리브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줍는 사람이 보리나 밀이나 올리브뿐만 아니라 현재 필요한 것 이상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삭줍는 사람은 비수기를 위해 보존하기에 충분하지만 다소 희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줍는 사람도 농부와 같은 식품 보존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남겨진 생산물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은 그들이 자신의 용도로 남은 것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

이삭줍기 과정이 Wara가 소유하지 않은 땅에서 식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그 땅에서 농작물을 파종하고 가꾸는 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농산물을 모으고 타작하고 집으로 가져가 가공하는 데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나열된 작물의 범위를 감안할 때, Ruth의 예를 바탕으로 Wara 중 한 명이 4월과 5월에 보리 수확을 이어가 가을에 포도와 올리브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된 마진이라는 개념입니다. 생산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계획하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장에서 대부분의 식량을 생산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에 따라 식단 패턴을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작물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작물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일조를 통합하기 위한 십일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십일조를 줄 만큼 충분히 재배하고 여전히 생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와라족이 수확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일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농업 공동체에 살지 않지만, 여전히 비슷한 관행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생활 방식을 제공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득을 십일조로 바칠 만큼 더해야 하고, 여전히 살아갈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여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소득과 비교한 후,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필요 중 몇 가지를 짝지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소득을 늘릴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심은 것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꾼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 교장들이 줄 수 있으려면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봅시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그들은 모든 생산물의 십일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그들이 수확물의 1/10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약간 까다롭습니다.

레위기 27장에서 십일조 신고 요건에 대한 최초 선언은 십일조가 주님께 속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8장에서 이것이 명확해지고 확대되면서, 레위인들은 이 경우 국가적 유산의 일부로서 주님을 대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십일조가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8장은 십일조의 세 배를 레위인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레위인의 도시 48개가 땅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이 도시들이 본질적으로 레위인의 창고가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18장에 따르면 레위인에게 주어진 몫의 십일조는 주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먹을 몫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로 택하신 곳에서 뿌리고 대체품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재료의 양, 온 나라의 완전한 법인 십일조, 얼마나 포함될 것인지를 감안할 때, JA 톰슨이 대표적인 몫을 중앙 성소로 가져가 축제를 열고 나머지는 지방 도시에 보관할 것이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옳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면 축하의 식사를 제외한 모든 것은 레위인에게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의 도시에 보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의 십일조는 신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신의 대표자로 봉사하고, 일부는 신 앞에서 먹고, 나머지는 48개의 레위 도시에 보관합니다.

그러나 3년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하를 하고 나머지를 레위인에게 주는 대신, 지역 마을에 저장해야 했습니다(신명기 14장). 이

3년차 십일조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지만, 레위인뿐만 아니라 WORA에게도 생산물을 제공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지역 도시에 저장되어 있는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물품은 해당 지역의 WORA와 레위인들에게 필요에 따라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는 단기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큼니다.

본문은 그것이 타작마당에서 나온 곡식이나 포도 통에서 나온 온전한 생산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산물이 주어지기 전에 가공되었고 따라서 저장 및 사용에 적합했음을 시사합니다.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십일조가 3년마다 주어진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과부, 외국인, 고아를 위한 복지 식료품 저장고가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당신의 마을에 있는 외국인, 고아, 과부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보내는 지시입니다.

학습과 달리 수혜자가 받을 것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따라서 3년차 십일조의 분배는 다소 최소한으로 보이고, 아마도 일시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적인 교량일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이삭줍기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공급될 것이고, 아마도 일반 가정에서 식량을 저장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 정의의 한 측면으로, 논의에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분의 백성이 십일조인 1/10을 돌려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들이 재배한 농산물의 일부가 레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했고, 레위인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교사와 안내자로서 자신들을 위해 사용했고, 필요에 따라 WORA를 위해 사용했다. 흥미롭게도, 신약은 이와 관련하여 교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충분히 명확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견해는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 돈의 일부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일에서 성장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 전체 원칙의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안식년 수확입니다.

이것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째, 안식년은 일곱 번째 해였습니다. 일곱 번째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거나, 가꾸거나, 수확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다가올 해설에서 전개하듯이, 그들은 농장 주변에서 다른 일을 해야 했지만, 땅과 핵심은, 본문에서 말했듯이, 땅은 쉬어야 했습니다. 안식년의 세부 사항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매우 논쟁적입니다.

관련된 세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의와 레위기 25장에 주어진 명확한 지시에 따르면 안식년은 7년마다입니다. 즉 6년 1 주기입니다.

6년 동안 작물을 재배하고, 1년 동안 땅을 쉬게 했습니다. 둘째, 안식년의 목적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이었는가? 저는 본문이 땅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인 해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년 자원 생산물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 25장은 아니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과 5절은 아니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6절과 7절은 그렇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간단한 6년과 7년 주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을 온전히 쉬고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각 개별 농부가 자신의 땅의 1/7을 한 부분 남겨두는 것입니다. 또는 한 가지 제안은 각 개별 농부가 매년 자신의 땅의 1/7을 묵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땅을 7개 부분으로 나누고 매년 6개의 다른 구역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그 개념이 실제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실일 테지만, 저는 그것이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농부들이 매년 교대로 농사를 지어 특정 농부의 땅만 특정 기간 동안 묵혀두고, 다른 사람들이 그 농부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편적인 일곱째 해 안식일에 반대하는 핵심 주장은 실용성이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마을의 농부가 한 해 농작물에 2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말했듯이, 두 가지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출애굽기 구절의 안식년 지침 바로 뒤에 안식일에 대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지침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자의 마음속에서 상관관계를 시사합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6년 일하고 1년 쉬는 것.

둘째, 역대기 하 36장은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유배의 원인이라고 단언하는데, 적어도 유배 기간의 측면에서는 그렇다. 전통적인 이해는 어렵고 비실용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요점인 듯하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6년에 8년째 수확까지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7년째에 백성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미리 여분의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년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나 기대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전반적인 반항, 즉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반항이었습니다.

쿠이치가 안식년은 인용문에서 보편적이고 동시에, 매 7년마다 모든 밭에 확장된다고 말할 때 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년의 목적은 주로 땅에 휴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부와 그의 동물들에게 자동적으로 휴식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쟁기질하여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을 주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안식년이 일곱 해 중 단 한 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3장은 모든 자원 생산물을 따서 먹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레위기 25장 6절은 농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조직이, 열쇠가 조직될 때 수확이 금지될 때 고든 웬햄이 옳다는 듯합니다. 따라서 레위기 25:5와 25:6, 7 사이의 명백한 갈등은 일곱 번째 해의 기본 원칙이 평소처럼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식년 동안 땅은 쉬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동등한 신뢰의 기반을 두어야 했는데, 이는 농장주와 WORA가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안식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공급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땅 주인인 그가 땅이 하나님의 것이며, 안식년에 그 땅을 하나님께 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걸을 수 있었고, 자원한 작물이 자라면 수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ORA 조항을 평가해 보면, 연구의 1부에서 언급된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사회 구조에 내재되어 있고 그 기반을 제공했으며, 각자에게 훨씬 더 많은 힘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통의 공통된 종교적 구조에서 나오는 세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1부에서 논의했듯이, 이스라엘의 태동기 국가는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인 13개 부족을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400년 후 탈출이 일어났을 때, 그 가족 구조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혼합된 회사가 나왔지만, 정복 당시에는 민족적 이질성이 기존 부족 단위로 크게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갈렙을 주요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복 중에 근절되지 않은 토착 부족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보존하고 국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제단에서 봉사했습니다. 다윗의 통치 하에서 기브온 사람 이스마엘은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나중에 기브온 사람 멜리디아는 유배 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룯이 보여준 것처럼 동화를 허용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동화와 사회 정의에 관해서는 사회 계층의 더 작은 단위가 중요할 것입니다. 두 집단을 차별화한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9절은 씨족에 의한 기본적인 구분을 보여주는 듯하며, 이는 대가족을 통합하는 듯합니다. 이는 정착이 본질적으로 도시와 마을과 같은 주어진 위치 내에 친족 집단을 배치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한 친족 구조가 레비라테 결혼과 고엘 책임의 관행의 기반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위치 측면에서 수확 관행, 위치 측면에서 이삭줍기와 수확 관행, 관련 관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아스가 룯의 이삭줍기에 관해 그의 집사에게 관대한 지시를 내렸을 때, 이것을 낭만적인 관심사와 연결시키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까운 친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엘의 책임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 가족적 유대감은 순응과 공급 측면에서 사회적 압력을 높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는 Wara에 대한 조치가 마을 단위의 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1부에서는 또한 현대 마을인 Kefr al-Maa의 개별 농장이 주택 지역을 둘러싼 들판에 분산된 여러 구획의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경작된 땅에 더 작은 구획이 섞여 있으면 감히 말해서 농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밭의 모서리까지 수확하지 말라는 훈계는 이삭줍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을 것입니다. 3년차 십일조는 우리의 세 번째 기반 개념으로, 1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십일조를 바쳐야 했지만, 그 두 해 동안 십일조는 레위 사람들이 48개 레위 도시 중 한 곳에 보관하고, 가져가고, 가져갔습니다.

이 조항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이 특별 조항은 전체 지역 사회에서, 전체 지역 사회에서, 전체 수확물에서 추출하여 수집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특히 레위인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종교적 체계가 사회 정의를 구축하는 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레위인 체계가 설립되었을 당시 이스라엘이 가진 유일한 국가적 체계였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십일조의 3년차에 십일조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보관 시설에 보관되었다는 점에서 다르게 처리되었습니다. 토라가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는 과정을 수립함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요인, 즉 통합된 대가족,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의 분산된 토지 소포, 3년차 십일조에 주목할 것입니다.

이 중 핵심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 정의의 흐름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진술에서 요약하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관계를 지배하는 십계명의 마지막 여섯 가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라는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이를 넘어섭니다.

사회적 구조는 대가족과 상호 연관된 커뮤니티를 포함한 관계를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삶의 비극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했습니다. 대체로 이 사회적 구조는 모든 이스라엘 사회에 제한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토라는 역사적으로 학대를 받는 경향이 있는 세 가지 범주의 사람들, 즉 WORA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뒤편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해 특별히 언급합니다 .

청동기 농업 사회의 사회적 규범을 배경으로 WORA 에 대한 몇 가지 특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탐구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조치의 균형을 발견했습니다. 세 가지 조치가 세 그룹 모두에 적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요구 사항은 수혜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이삭줍기의 경우, 그는 또는 그녀는 밭으로 나가서 생산물을 가져오기 위해 노동해야 했습니다. 안식년 수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관찰은 단기적인 긴급 상황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차 십일조는 갑작스러운 단기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음식을 보관하는 지역 도시의 복지 식료품 저장실인 듯합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이 분배할 것입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의무는 없는 듯하지만, 3년 중 1년에 한 번만 십일조를 바치게 되므로 대량 분배를 위해 지정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세 번째 관찰은 사회 정의 구조의 상당 부분이 전체 커뮤니티에서 의도적으로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공유할 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수단보다 낮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농부는 예를 들어, 정상적인 수확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곡식을 심어야 했고, 동시에 십일조를 바칠 만큼 충분한 곡식을 심고, 그 다음에는 누가 이삭을 줍든 충분히 남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WORA가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요구 사항과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그의 노력이나 부담에 대한 응답으로 이익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찰은 사회 정의가 지역 수준에서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의 경우, 그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을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을을 떠났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대가족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차 십일조의 경우, 지역 수준은 가장 가까운 레위 도시였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본질적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것을 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는 사람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회적 거짓말쟁이에 대한 구약성경 조항은 특정한 사회 구조와 역사적 맥락의 일부로 주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우리 사회와는 매우 다른 매우 동질적인 농업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로 상호 연관된 인구 내에서의 지역 사회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체 커뮤니티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단일 종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을 엄두에 두고 언급된 기본 원칙은 현대 사회 정의 조항을 개발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이상치에 대한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이클 하빈 박사입니다. 이것은 4부: 과부, 고아 및 거주 외국인 조항입니다.